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부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http://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정보의 홍수와 미숙한 인격

손봉호 (대표주관)



기독교 고전들 가운데 가장 깊이 있고 영향력이 큰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과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칼뱅이 27세 때 썼다. 물론 여러 번 수정하고 보완했지만 그 기본 골격과 사상은 상당할 정도로 초판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위대한 고전을 어떻게 27세의 청년이 쓸 수 있었을까?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 때문이란 것은 좋은 이유가 아니다. 칼뱅은 천재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수하다. 그런데 온갖 책과 논문이 홍수를 이룬 오늘날에는 아무도 <기독교 강요>에 버금가는 역작을 내지 못했고, 더구나 30대 이전에 그런 무게 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다.

물론 칼뱅은 요즘 젊은이만큼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컴퓨터, 휴대전화, 자동차, 신문, 잡지 같은 것은 없었고 배우, 가수, 운동선수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 바

다 속, 천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식하였다. 그런 너저분한 것들 대신 몇 가지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에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에는 읽을 책이 적었다는 사실이다. 칼뱅보다 거의 150년 후에 살았던 라이프니츠(G. W. Leibniz)는 18살 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고 그의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은 다 읽어버렸다 한다. 그때 출간되었던 책은 다 읽었다는 것이다. 칼뱅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은 그보다 훨씬 더 적었다. 학문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고 학자나 필자도 많지 않았으며,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고 책 출판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오늘날에 살았다면 그는 결코 27세 때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라이프니츠도 물론 18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나이에는 해당 분야에 어떤 책이 출판되었고 특히 어느 책이 중요한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

물론 자연현상이나 기술 분야에서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현상의 경우에도 정보의 양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현상의 경우만큼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정치학을 알아야 정치를 잘 하는 것 같지 않고 경영학 전문가라야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현상과 관계해서는 많은 정보가 깊은 통찰과 이해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많은 정보가 깊은 이해와 통찰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컴퓨터, 휴대전화, 자동차, 신문, 잡지 같은 것은 없었고 배우, 가수, 운동선수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 바다 속, 천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식하였다. 그런 너저분한 것들 대신 몇 가지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에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인간 이해와 관계해서 철학자 하이데거의 유명한 발언이 있다. “오늘날처럼 인간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알려진 적은 없다.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제시된 적도 없다. 오늘날처럼 그 지식을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때도 없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무지한 때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인간이 문제꺼리가 된 적도 없다.”

칸트는 철학의 기본 문제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그 세 질문은 모두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만약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에 대한 방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무지하게 되었다면 지식, 도덕, 종교, 예술 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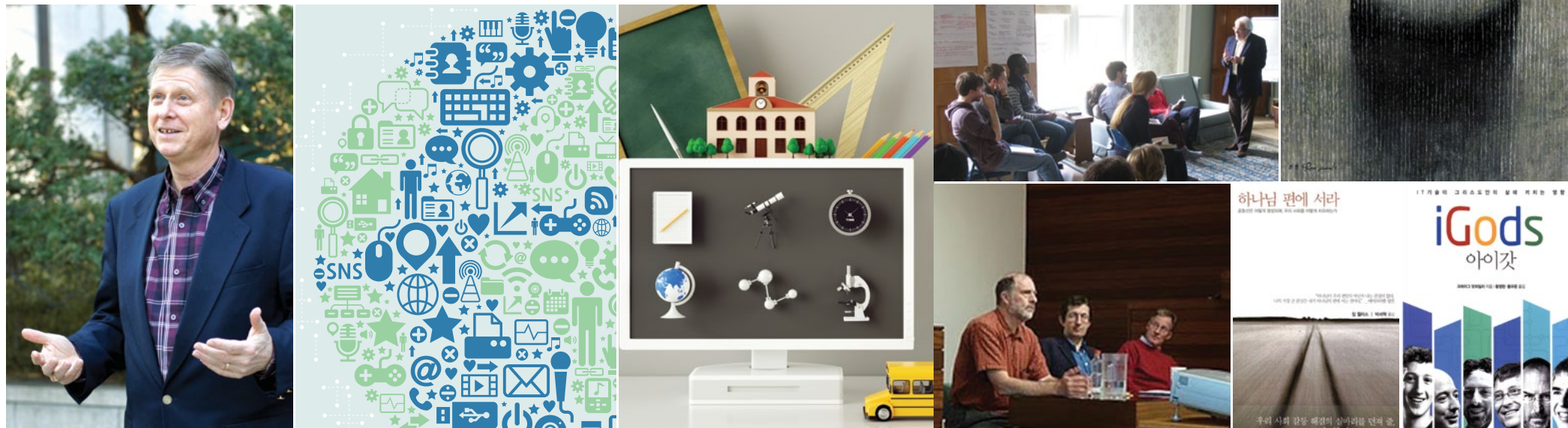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하이데거의 주장이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칼뱅 이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 기독교 문필가들이 얼마나 많은 책과 논문을 쓰고 발표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왜 인간, 하나님, 죄, 사랑, 구원에 대해서 칼뱅을 능가하는 이해와 통찰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설교는 왜 과거보다 더 피상적이고 감상적인가?

오늘날엔 온갖 정보가 문자(ubiquitous) 그대로 도처에 널려있고 너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하이데거의 표현대로 수많은 지식을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는 점점 더 빈곤해지고, 판단은 오히려 유치해지고, 행동은 더욱 더 야만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정보습득에 시간과 정력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형성에 교육의 관심을 모을 때가 아닌가 한다.

# Contents

WORLDVIEW · MAY · 2014



**WORLDVIEW**

2014년 05월호 WORLDVIEW 통권 167호



표지인물  
크리스천 오버만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OVER STORY

06 교육, 진리로 하나되는 길 \_크리스천 오버만(Dr. Christian Overman)

## SPECIAL

- 16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넘어 임마누엘(Immanuel)로! \_박영주
- 20 유비쿼터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_정창규
- 24 스마트미디어 시대, 진짜 스마트한 교육은? \_권장희

## COLUMN

- 02 대표주자 정보의 홍수와 미숙한 인격 \_손봉호
- 32 배당 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영국, 문화 변혁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_최용준
- 36 나의 믿음, 나의 신앙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미술운동 \_윤성진

## CULTURE

- 62 유머 \_손봉호

## BOOK REVIEW

- 42 서평 하나님 편에 서라 \_이창호
- 46 서평 iGods \_권오병

## NEWS

- 50 특집 기독교 세계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 61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실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전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http://m.worldview.or.kr)



# 교육, 진리로 하나되는 길

지난 1월, ACSI KOREA 주관 하에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기독교사 컨퍼런스가 열렸다. 크리스천 오버만(Dr. Christian Overman)과의 대화로 진행된 기독교 세계관 통합교육 컨퍼런스에서 ACSI 사무총장인 이상수 목사가 그를 만났다.

☎ 인터뷰어 이상수(ACSI 사무총장), 사진 신효영

**이상수(이하 이) : 한국 방문 이유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육대학원,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Korea), 이랜드 직장사역연구소 등에서 강의를 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육대학원과 기독교학교 국제연맹 세미나에서는 “대화로 이어가는 기독교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일상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과 통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

이랜드 직장사역연구소와 함께한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과 일상의 삶을 연결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 강의했다.

**이 : 교장 선생님께서 재직하다가 2000년도에 “Worldview Matters”라는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Worldview Matters” 에 관해 소개하면?**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대학이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소수의 기독교대학에서만 기독교사들에게 교과목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독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독립 비영리단체 “Worldview Matters”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독교 학교들이 잃어버린 성경적 기초를 회복하고, 성경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독교사와 학생, 학부모,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orldview Matters”는 학문적 영역에서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가운데서 성경적 세계관과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 저서인 <진리와 하나된 교육>(Making the connections)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집필 동기는?**

<진리와 하나된 교육>은 소위 “큰 그림(Big Picture)”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특정 수업에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로, 삶에서 경제학, 수학, 역사, 과학, 체육 등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시애틀의 캐스캐이드 기독교 학교 교사들과 함께 개발하였는데, 처음에는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디자인했다가 결국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었으며, 총 8단계로 구성하였다. 세세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매일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그렇게 하면 쉽게 지치게 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일 년에 두 차례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사들과 함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교실에서 적용함으로써 수정, 보완하였다.



크리스천 오버만(Dr. Christian Overman)





**이 : <진리와 하나된 교육>을 집필하기 전 “Think again”이라는 세미나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Think again”에 관해 소개하면?**

“Think again”은 하루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대학생, 목사 등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만이 유일한가? 기독교 세계관이 여타의 세계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등 일상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세미나이다.

“Think again”를 개발한 이유는 모든 부모가 교사의 위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했다. “Think again”은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가정들>(Assumptions)이라는 책에 기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가정들>은 “Worldview Matters”라는 단체를 시작하기 전인 1989년에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 대하여 쉬운 일상의 언어로 집필한 것이다.

나는 부모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바란다. 이 책은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바라기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Editor's Comment



**<진리와 하나된 교육>, 크리스천 오바만, 예영커뮤니케이션**  
이 책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교육의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세상은 변하여 바른 방향으로 갔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이기도 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할 수 있게 지침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 :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통합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테면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 주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각 주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쓰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학습 주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 성경적 세계관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을 참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땅콩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와 레이저 프린터를 발명한 게리 스타크웨더(Gary Starkweather)가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나는 게리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비디오향을 본 적이 있다. 게리는 발명품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고자 했다.

나는 부모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바란다. 이 책은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바라기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집에 가서 당신의 믿음과 통합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일 것이다. 이를 위해 “Worldview Matters”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단순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특정 학교를  
잘 훈련하면, 그들이 다른 학교 교사들을  
잘 훈련시킬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에 “Worldview Matters”  
연구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이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 6~8개의 학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가나, 남아메리카의 기아나(Guiana), 미국의 일부 기독교 학교 등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통합수업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각 나라를 개별적으로 여행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는 성경적 세계관과 일에 관한 신학적 기초를 다지는 작업으로 먼저 <우리 일상에 숨겨진 가정들>과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게 될 것이다. 대로우 밀러와는 지난 6월에 멕시코에서 만나 성경적 세계관에 관해 강의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이프워크>(예수전도단 역, 지난 2012년 4월 <월드뷰>에서 소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의 책은 일터에서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대로우 밀러의 <라이프워크>와 <일상에 숨겨진 가정들>을 함께 읽고, 성경적 원리들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수학, 역사, 과학 수업을 “일에 관한 신학”(Theology of work)과 연결하고 성경적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찾아보게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6~10개의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며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는 각자의 실정에 맞는 “일의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상황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특정 학교를 잘 훈련하면, 그들이 다른 학교 교사들을 잘 훈련시킬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에 “Worldview Matters” 연구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이 :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교육가들의 가장 큰 도전은 성숙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다.

루터의 시대로 돌아가보자. 당시에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믿음 안에서 소를 키우며 우유를 짜는 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겼다.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지 스윈록(George Swinock)은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일 모두 거룩한 일이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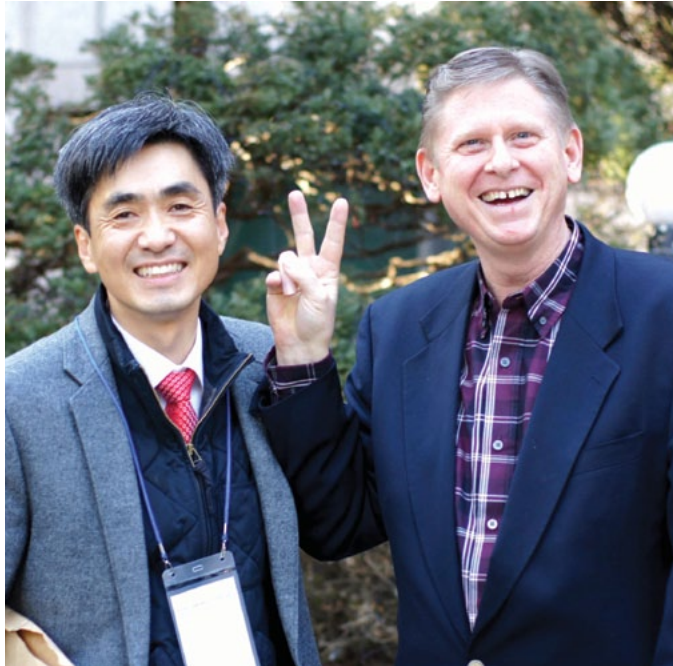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는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왔다. 교회 출석, 성경 읽기, 기도 등은 영적인 일로 여기고, 세상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하찮은 일, 즉 영적이지 못한 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은 어디인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모든 것을 구속하신다면, 세속적인 세상은 어디인가? 나는 세속적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속적인 세상은 단지 인간의 상상속에 존재하는 허구일 뿐이다.

나의 친구인 대로우 밀러는 미국 교회에 만연한 이러한 현상을 “복음의 영지주의”(Evangelical Gnosticism)라고 부른다. 집을 수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을 때 주께 하듯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육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 사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다. 가장 큰 압박은 단순히 내용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이면에 담긴 가치들을 가르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장벽이 있다.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하는 부담과 성경적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다.





**이 :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도 동  
일하게 겪고 있다.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  
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바란다. 지쳐 있  
다면,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뒤  
로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  
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  
면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  
다는 사실을 믿는가? 나는 여러분들에  
게 힘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만물을 창  
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  
어주실 것이다.



#### 크리스천 오버만

성경적 세계관 연구소의 연구 및 제품개발 이사이며 World View Matters Inc.의 전무이사이다. 그는 사립학  
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쳤으며, 14년간 교장으로 재임한 후, 북 시애틀 기독교학교 학원장을 역임  
했다. 시애틀 퍼시픽대학(Seattle Pacific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퍼시픽 루터대학(Pacific  
Lutheran University)에서 행정가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시애틀 퍼시픽대학 평생교육과정 외래교수로 재임하  
고 있으며, 캐시(Kathy) 여사와 함께 학교, 교회, 교도소 및 국내와 여러 기관에서 성경적 세계관 워크숍을 진  
행하고 있다.

그는 1979년 이래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고, 다른 기독교학교를 돌보는 일과 워싱턴의 푸알럽, 타코마, 스펜어  
웨이에 있는 몇몇 지역 학교들을 통합하여 현재 약 2,000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초교파 기독교학교를 만드는 일  
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1978년 설립된 ACSI는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약자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 기관입니다. ACSI는 기독교교육가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기독교학교를 위한 기능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들을 위한 인증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촉진하고 기독교학교 및 기독교사들을 위한 훈련과 자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관으로,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으로 공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온전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하며, 사회에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건전한 학교를 세우며, 성경적 세계관을 구현하고 변화를 일  
으키는 가르침과 제자화를 실천하고 자신의 성장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자 양성을 비전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acsikorea.or.kr>

주소 (442-819)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경수대로 604번길 18 메르디앙빌딩 601호

Tel 070-4488-2500-1 Fax 031-217-2501 Email [acsikorea@acsi.or.kr](mailto:acsikorea@acsi.or.kr)

## 제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학술대회**

# 기독교교사의 세상바로보기

이제 우리 기독교 지성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절박한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이 <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의 협동적 집필 과정을 통해 작은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실이 다시 작은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되어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 들로 키워나가는 출발점이 되고자 작은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의 세계관 통합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교육 동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14. 5. 10(토) 9:30-13:00

**장 소** **총신대학교**(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제2종합관 지하 1층 카펠라홀**

**주 최** 기독교학문학회 교육학분과, DCTY

\* **등록 안내** | 등록 및 접수 9:30- 10:00

\* **참가비** | 1. 사전등록(5월 2일까지 입금), 2. 등록비: 10,000원

**사전등록자 선착순 50명에 한해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 (5권/1세트, 정가 55,000원)을 무료증정**

\* **예금구좌** | 농협 351-0698-4736-93 (박영주)

\* **문의처** | 기독교학문연구회(02-3272-4967, 교육학분과장 박영주 (joycepk728@gmail.com))

\* 주차증은 등록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ORLDVIEW**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T. 02.754.8004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 지 원 안 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b>모집분야</b>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b>MACS/DCS 과정의 특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li> <li>2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li> <li>3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li> <li>4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li> </ol>
<b>지원자격</b> <b>교 수 진</b> <b>원 서 마 감</b> <b>문 의 처</b>	<p>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플 점수 불필요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b>worldview@twu.ca</b>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 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p>

## 기독교세계관온라인과정 VIEW Worldview Certificate Program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세계관 강의를 전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경영(business), 과학(science), 의료윤리(medical ethics) 과정 우선 개설
-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목과 과정이 추가로 개설
- 각 과정은 창조론펠드트립(캐나다 록키 혹은 국내)을 포함한 4개 과목으로 구성
- 2014년 9월 가을학기부터 정식 오픈 예정
- VIEW 과정과 연계
- 교회 혹은 기관에서 단체 수강 할인 적용
- 문의처: theworldviewmedia@gmail.com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부임기념 강의

## 여호수아서의 신학과 윤리



전성민 교수

학력\_서울대학교 수학과(BSc)  
캐나다 리젠티칼리지(M.C.S.,ThM)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D.Phil.)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현) 기독교연구원 노혜이마초빙연구원  
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 옥스포드 신학 및 종교학 단행본 총서(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에 『윤리와 성경내러티브』(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한국인 최초로 출판

\* <https://vimeo.com/wvmedia>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WORLDVIEW SPECIAL

## 유비쿼터스+교육?



연일 신문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한다.  
첨단 기술이 늘 긍정적일 수 만은 없다.  
그렇다고 부정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유비쿼터스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자들을 통해  
교육이 있어야 할 자리와  
기술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연 우리는 지금 첨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넘어  
임마누엘(Immanuel)로!

**: 기독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방향성을 고민하다**

**◎ 박영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에게 ‘유비쿼터스’ (Ubiquitous)는 세련된 첨단 과학 용  
어일 뿐 아니라 삶의 특별한 방식에 대한 신앙적 표현  
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편재하는, 모  
든 곳에 존재하는” 등의 의미를 지닌 ‘ubique’라는 라틴  
어에서 유래한 유비쿼터스만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한 용어가 또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  
결되어 인간의 삶 구석 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  
비쿼터스 환경이 급속히 진전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편  
139편 기자의 고백처럼 유비쿼터스의 의미를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유비쿼터스 환경이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과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컴퓨터나 유무선 여부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즉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뿐 아니라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자동차의 네비게이터, 센서 등 독립형 컴퓨터가 아닌 모든 정보화 기기가 네트워크화 되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어떠한 장치에서도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저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이다.<sup>1</sup> 이제 우리는 수백 대가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상과 현실 공간을 결합한, 사람과 사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공간에서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앨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면, 최근 인류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보 혁명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제4물결인 유비쿼터스 혁명<sup>2</sup>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수 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스마트폰이나 통신사를 대체하려는 조급함은 이제 당연한 생활 패턴이 되었다. 머지않아 거실을 비롯한 집

안 곳곳과 사무실, 자동차 등에 내장된 컴퓨터와 음성으로 대화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시간에 커피 메이커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고, 거실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개폐하며, 생체 리듬에 맞추어 실내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비쿼터



1. U-러닝시작하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2. 홍순구, 유비쿼터스의 이해와 활용 사례, 유원북스, 2014

스 환경과 교육을 접목한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는데, 바로 Ubiquitous-learning이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듣는 e-러닝에서,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도 동영상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M(Mobile)-Learning을 거쳐, 이제는 U(Ubiquitous)-Learning이다. U-Learning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콘텐츠를 전달받아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필요와 선택에 의한 통합적 학습체제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2004)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체제 즉, 에듀토피아(education utopia)’로 정의하고 있다.<sup>3</sup> U-Learning 붐에 맞춰 공공도서관도 U-도서관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얼마 전부터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 유비쿼터스 영어 놀이터라는 곳을 지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영어 놀이터<sup>4</sup>는 외관상 여느 놀이터와 큰 차이는 없지만, 어린이가 놀이시설 옆에 설치된 모니터를 누르거나 그 옆을 지나가면 영어로 설명해 주거나 말을 한다. 또 놀이터 내 정글 매트라는 곳에서는 장난감 과일이나 빵을 모형 계산대에 올려 놓으면 ‘apple’, ‘bread’ 등의 영어 단어를 가르쳐 준다. 정보 기술과 놀이 시설을 접목

하여 아이들이 영어 환경 속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전자 칠판,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 환경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구축되어 학생들이 교사 없이도 학생 카드에 내장된 컴퓨터 칩을 통해 학습 과정 및 진도를 관리 받는 시스템은 전형적인 U-Learning의 예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상적인 교육 환경일까?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에 합당한 교육 환경일까? 유비쿼터스 시대에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무소 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혹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바로 바로 해결해주는 지니(genie)나 슈퍼 컴퓨터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 교육가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 속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U-러닝시작하기, Ibid  
4. "경남 양산에 전국 첫 유비쿼터스 영어놀이터 등장", 연합뉴스, 2014-03-27

사실 교육은 원래부터 유비쿼터스적인 특성이 있다. 역사상 삶의 현장 어디에나 늘 가르치고 배우는 이동성과 편재성이 있었다.<sup>5</sup> 성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빠르게 알도록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sup>6</sup> 이러한 특성을 이제 컴퓨터가 일부 그러나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급변하는 사회, 교육 환경이라고 그리 겁먹을 일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 교사들이 세상을 이기는 지식과 삶의 실천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이다.

먼저 유비쿼터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sup>7</sup> 분별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적용할 삶과 교육 전략이 모두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일 수는 없다. 물론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전략이 세워지고 검증되겠지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sup>8</sup>하게 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들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누리되,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찾도록 용기를 내자.

또한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음 세대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 독특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독특성에는 남들보다 훨씬 느리게 유비쿼터스 기기들을 이해하거나, 전혀 그것들을 작동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된다. 또 오지의 선교사 자녀들처럼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육

조차 받기 힘든 이들도 많다. 모든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이 U-Learning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교육과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비쿼터스 환경을 심분 활용하여 그들에 대한 기초 정보, 정서, 주변 환경들을 충분히 반영,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성은 한마디로 네트워크에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네트워크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곳은 필요하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되고, 어디서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며, 함께하는 이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일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곳, 서로 돌아보며<sup>9</sup>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는 곳이다. 하나님은 유비쿼터스하시지만, 스스로를 제한시키셔서 우리 곁으로 임마누엘(Immanuel)하셨다. 비록 컴퓨터라는 기기를 통해서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나는 유토피아적 생활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소외되고, 뒤처지고, 잊혀진 이웃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 교육의 방향성이며 하나님의 유비쿼터스적 성품에 응답하는 삶이다.



**박명주**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현장 경험을 하였으며,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에서 MS in Education,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교 리더십으로 Ed.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통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 U-러닝시작하기, Ibid  
6. 신6:7, 수1:8, etc.  
7. 마10:16  
8. 고후 10:5  
9. 히10:24-25



# 유비쿼터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정찬규 (선교사)



2008년 5월, 태국 남부 이슬람 지역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방콕에서 만났다. 선교사님은 두 자녀도 뒤를 이어 그 지역 복음화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이슬람이 깊이 뿌리내린 지역이라 현지 학교 대신 가정에서 성경과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독교 학교 설립 소식들이 넘쳐나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최전방 지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현실과 지원은 왜 이런 것일까!  
우리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

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kanacademy.com, coursera.org!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전 세계의 교육 소외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이다.  
한국 선교는 그동안 많은 열매를 맺으며 발전해왔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MK와 교육현황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175개국에 19,798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으며 17,432명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전체의 49.2%, 약 8500여 명이 학생이다. 학교유형별로는 지역학교 35.9%, 국제학교 28.6%, 한국의 학교 14.6%, 홈스쿨링 9.0%, MK학교 8.9%, 기타 3.0%이다.<sup>1</sup> 이 통계에 따르면 최소한 64.5%, 약 5400명이 외국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홈스쿨링을 받고 있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9%, 700여 명이 나 된다.

## 무엇이 문제인가?

유아부터 학령기의 자녀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1~2년의 훈련과 정착 기간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때 성인 선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제공받는다라는 것이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적 필요가 요구되는 자녀들이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2011년 봄,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 명의 저학년 학생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캠프 기간 중 한 아이가 쓰기 수업을 거부하면서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국어는 물론 현지 언어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였다. 특히 쓰기 수업을 싫어해서 현지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후 스카이프 수업을 받는 6개월 동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선교준비 등 2년간 타문화로의 잦은 이동이 정서 불안 및 사회성 발달 장애를 가져왔고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1~2년의 심리치료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권유 받고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많이 밝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처럼 교육적 대안이 없는 선교사 가정의 훈련과 이동은 결국 몇 년 후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 아이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마닐라한국아카데미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와 공부하는 것이 꽤 익숙한 일이다. 학년을 낮추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영어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언어에 매달리다 보니 진로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음 이야기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워릭의과대학의 정신의학자인 스와란 싱(Swaran Singh) 박사에 따르면 잦은 전학은 아이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으며 정신병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sup>2</sup> 김현식, 문혜진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사와 전학이 아동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들에 착안하여 이어나 전학이 국어와 수학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sup>3</sup> 제3세계 학생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는 비엔나국제학교는 ESL과정과 함께 Mother Tongue Program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sup>4</sup>  
문상철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편하게 느끼는 의사소통 언어와 대학 진학할 언어권의 나라가 다양해서 언어와 관련하여 충돌될 기대들로 인해 혼동감과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하였고, 또 'MK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본국에 귀국할 때 본격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sup>5</sup>

1. 문상철, "한국선교사자녀교육의 과제", KRIM(2013): 8-9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101088&sid1=001>

3. 이사과 전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식, 문혜진, 교육학연구 제50권 제3호 (2012. 9) pp.277-302

4. [http://www.vis.ac.at/show\\_content2.php?s2id=73&language=en](http://www.vis.ac.at/show_content2.php?s2id=73&language=en)  
비엔나 국제학교 ESL과정과 함께 Mother Tongue Programme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국어 학습을 지원 취지를 밝히고 있다. 'There is a lot of research to show that children who have a strong foundation in their home language are more successful at school than monolinguals and enjoy a greater feeling of self-worth and identity'

5. 문상철, "한국선교사자녀교육의 과제" KRIM(2013): 20-21

타문화 적응과 이동성이 불가피한 선교적 환경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파송 단체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던져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동북지역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

2011년 가을, 동아시아 동북지역의 한 선교지에서는 매일 오후 4시에 현지학교를 다니는 8명의 학생들이 작은 교실로 모여들었다. 2,4,5,6학년이 한 음악학원 강의실에 모여 한국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였다.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학부모가 4개 학년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였다. 수업이라기보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형태였다. 어린 나이에 그곳에 온 아이들은 국어교과서의 질문이나 용어가 어려운 듯했다. 다음 날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과 읽기능력 테스트를 했다. 결과를 궁금해 하는 부모님들에게 그저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격려한 후 학습 계획을 세워 다시 연락하겠다고 돌아왔다. 대부분 40% 이하의 성적들이 나왔고 심지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답을 달지 못한 것들도 많았다.

그 해 여러 선교사 가정을 방문하면서 비슷비슷한 교육 환경에 안타까웠다. 외국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부분이고 기숙사는 중학생 이상만 입학이 가능했다. 또한 자녀교육 문제는 선교사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주변에 집중 거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비가 비싸고 영어준비가 안 되어서 입학이 거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서는 다른 교육적 대안이 없는 것인가?

나눔을 향한 도전! 30분 화상 수업!

“영미야 안녕! 선생님 목소리 들리니? 얼굴은 보이고? 화면이 흐트해서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도 작게 들리고? 뭐가 문제지? 볼륨을 높여 볼래? 와~! 이제 잘 들리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 인터넷 화상수업은 다양한 선교지에 교육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모국어는 정체성 형성과 모든 학습의 기초라서 한국어 수업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1회 30분 말하기·듣기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교육자료와 안내서를 보냈다.

수업 이야기 1

처음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깜짝 놀랐다.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대화가 불가능했다. 중국인이었다.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과 결혼한 경우다. 중국어는 잘 하는데, 한국말은 자신 없어하고 한글도 터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스카이프 수업을 통해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한글을 가르쳤는데 다른 학생에 비해 학습 속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어머니를 위해 한국어 강좌를 열고 아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해드렸더니, 일년 후 실력이 늘어난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만큼이나 아이의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많아졌다.

수업 이야기 2

하늘과 별과 지붕만 있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 있다. 2010년 훈련을 받던 선교사님이 “저희가 갈 선교지를 탐방하고 왔는데 벽과 지붕과 하늘만 있더라구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 아이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 그때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만 외장 하드에 교육 자료를 담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거주비자가 없으면 학교를 다녀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아랍 아이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홈스쿨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결국 검정고시밖에는 대안이 없다. 시차는 5시간이고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차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다섯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수줍은 미소의 헤민이, 중학생이지만 초등 교과서로 공부를 시작하는 안 선생님 자녀들, 홈스쿨을 선택해야 하는 조이, 사막의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산다.

스카이프 수업은 단순히 말하기, 듣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홈스쿨링 학생에게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고, 현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힘든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이

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며, 사춘기 십대들이 고민을 나누는 비밀의 방이기도 하다. 부모님에게는 교사와 상담하며 한 아이의 인생에 대해 기도제목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인터넷 속도가 1MB도 안 되어서 자주 화면이 끊기고 소리가 안 들려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학년 말이 되면 선생님과 이별이 싫어서 눈물을 비치는 아이들과 함께 우는 교사들의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2주간의 특별한 학교

화상수업이라는 제한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과 사랑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2주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교사들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국어 3시간, 특별학습 3시간으로, 학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 더불어 객관적인 학습평가와 학부모 상담도 진행된다.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설레게 하는 시간이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찾아온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오신 첫손님이시네요!” 이 글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감사의 문장이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희망들

2014년 3월 현재, 동아시아, 인도, 네팔, 오만, 카타르에 거주하는 선교사 자녀 50명이 인터넷으로 선생님과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첫째로 기독교사들의 헌신이다. 젊은이들의 교육적 열정과 헌신, 한국 현직교사들의 60분 사랑의 교육 나눔, 거주 국가와 상관없는 교육 전공자들의 달란트 기부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 수단이 우리에게 교육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CCC 단기사역자 8명은 필리핀에서, 현직교사 12명은 한국에서, 2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어, 음악, 영어, 수학, 보전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남편을 따라 출국하신 음악 선생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한 음악 수업을 2개국 홈스쿨링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음악 교육과정도 개발 중이다.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자신의 달란트로 섬기는 선교사도 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스카이프 수업의 학습효과와 필요성은 검증을 마쳐가는 단계이다. 남은 과제는 좋은 기독교사들의 참여, 역사 등의 교육과정 개발과 제공, 그리고 인터넷이 쉽지 않은 지역을 위한 동영상 강의 제작과 인터넷 전문가 양성 등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방학이면 자신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학교! 이제 자신의 달란트를 나눌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선교의 현장이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교육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교사는 교육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이다.

또한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타자이다.”



정찬규 경인교대, 인하대학교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 상담전공, CCCTM 기독교사모임 대표역임하였다. 2008년 18년의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교사선교사로 파송 받아 현재 CCC파송선교사, 필리핀 마닐라한국아카데미 학습지원센터 교감으로 섬기고 있다. kjemo@naver.com에 문의하면 된다.

MK사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국내 교사선교사 훈련 및 정보 GMF의 MKNEST www.mknest.org, 02-2652-3519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MK사역과 훈련 KOKI ollegilbert@nate.com 010-3226-0791, KoKi하우스 070-7607-3117  
필리핀 MK학교 마닐라한국아카데미 www.mha.or.kr 070-8638-3355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지원사역 학습지원센터 mhamini@naver.com 070-8235-8425



# 스마트미디어 시대, 진짜 스마트한 교육은?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 들어가는 말

MB 정부에서 시작된 디지털교과서로 통칭되는 스마트 교육전력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스마트교실, 스마트 교과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제주도 탐라연수원에서 만난 한 중학교 선생님의 속 터지는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저희 반에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출신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무얼 공책에 쓰자고하면, ‘왜요? 왜 써야 하는데요?’ 하고 반문하면서 쓰기를 거부합니다. 이 학생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책상 위에 스마트기기를 올려놓고 손가락만 놀리다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는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12%와 75%의 차이?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진다.’는 격언이 있다.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우리는 가족의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 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10대들은 20대, 30대, 40대 이후를 생각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할 나이에 쉽고 편한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육이란, 말 그대로 가르칠 敎에 기를 育이다. 가르쳐 자신의 힘을 키우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부모들 대다수가 스마트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실리콘 벨리의 발도르프 초등학교에는, 컴퓨터도, 그 흔한 전자칠판도 없이 수업이 진행된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전자기기를 일체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편한 방법을 찾지 말고 자신의 힘을 키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종이사전을 펼쳐 단어를 찾은 후 단어장에 옮겨 적고, 쓰면서 외웠다. 해마세포는 그렇게 기록하고, 반복하고, 노력해야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 처럼 전자사전을 사용하면 빠르고, 쉽고, 편하기는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뿐 단어장에 옮겨 적지도 외우려

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해마세포에 기억되지 않는다. 발도르프 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숙제에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글 검색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검색을 하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정리하고 도출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 될 수 없다. 사색을 해야 학습이 되는 것이다. 한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다.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한 그룹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숙제를 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드래그한 후, 복사하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아주 편하고 쉬웠어요.” 라고 했다. 문제는 그들에게 과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이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답을 말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책을 읽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 구조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전두엽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다. 책을 그대로 낼 수 없으니 요약·정리했을 것이다. 요약·정리하려면 전두엽이 또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직접 손글씨로 써야 하는데, 글을 쓰다 보면 여러 번 쓰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즉, 쓰기를 할 때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습은 쓰기로 끝이 나야 한다. 이렇게 숙제를 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더니 정답율이 75%였다. 12%와 75%.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인 양 따라가고 있는 스마트교육의 허상과 진짜 스마트한 교육의 모습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심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바닥 위에서 세상의 온갖 재미가 펼쳐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심심해서 책을 읽겠는가? 책을 읽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심심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심심해야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잡는 순간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재미에 온통 자신을 내어 맡긴 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의욕이 상실된다. 심심함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기력증에 빠지고 소위 귀차니스트로 전락하고 만다. 스마트폰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시간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필자의 강의를 들은 중학생 딸이 남긴 소감이다. “뉴튼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결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제작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그 중 30원은 부품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5원은 중국에 하청을 주어 조립하는 비용이다. 애플사는 65원을 가져간다. 부품도 만들지 않고, 조립도 하지 않은 애플사가 무엇을 했기에 65원을 챙겨간 것일까? 아이폰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디자인은 한마디로 전두엽의 사고하는 기능을 사용한 비용이다. 심심해서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두엽은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65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이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에 잡혀 있다면, 전두엽 기능은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맡긴 일만 하는 5원짜리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

## 재미와 편리함, 스마트폰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마트한 교육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집념을 넘어서 집착은 대단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위해 교단에 서면 엄청난 저항이 느껴진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강력한 갈망과 연결된 신체의 일부이자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 어머니들은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사주고 나면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미 엄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스마트폰을 쟁취했고, 그것을 자신의 신체 일부로 인식하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사과를 베어 물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담은 그의 거처인 에덴을 잃었다. 아이폰에 왜 베어 문 사과 무늬를 새겨 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폰이 아담의 눈앞에서 그를 유혹했던 선악과만큼이나 강력하게 지금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선악과는 인간이 먹으면 죽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 선악과는 먹으면 눈이 밝아져 전능한 신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사단은 곁에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실에서 스마트폰 절제력 키우기를 교육할 때, 먼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유익한 부분을 살살이 찾아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유익한 이유들을 칠판에 나열한다. ‘카톡으로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친구랑 약속을 정하기에 편하다.’, ‘재미있는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다.’, ‘시간 보내기 좋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다.’, ‘정보를 빨리 검색할 수 있다.’ 등등...

이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해보면 결국 두 가지로 수렴된다. 하나는 편리함, 다른 하나는 재미이다. 이들은 대체 불가능 것들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카톡이 아니어도 친구와 소통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은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빠르고 쉬울 뿐이다. 여기까지 대부분의 아이들도 동의한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재미와 편리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에 대해 찾아보자. 아이들은 정직하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불편들을 살살이 찾아내어 발표한다. 이를테면, ‘건강이 나빠진다.’, ‘엄마와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등... 그리고 굳이 덧붙이지면, ‘생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사라진다.’,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등이 있다.

학생들이 찾아낸 ‘건강, 시간, 가족, 공부, 수면’ 등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본질적인 것들로,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삶의 가치들이다.

결국 생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와 인간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좀 더 나은 재미와 편리함을 얻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는 지점이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출발점이기에는 우리는 학생들을 여기까지 안내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고대 극지방의 늑대 사냥법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내용은 이렇다.

“에스키모 사냥꾼들은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추운 얼음판을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창끝에 짐승의 피를 묻혀 얼린 후, 이를 반복하여 날카로운 칼날이 두꺼운 고드름에 덮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된 고드름만 보이도록 눈 속에 묻는다. 그러면, 추운 겨울 먹이를 찾아 헤매던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다가와 활기 시작한다. 핏줄수록 맛은 있지만, 혀가 점점 얼얼하고 무감각해지다가 마비된다. 고드름이 다 사라지고, 창끝에 혀가 베이고 피가 솟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게 된다.”

그렇다!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했다. 어리석은 늑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마트폰에서 “재미와 편리함”을 얻기 위해 목숨과도 같은 절대적인 삶의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미와 편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이다. 죽어가는 늑대를 기억하면서 스마트폰의 재미와 편리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 어느 교회의 금요철야예배에 초청받아 밤 12시까지 강의하고 돌아오는 길에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소개하면서 진짜 스마트한 교육을 정리하고자 한다.

“저희 4학년 딸이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는 이제 자기 스마트폰 사달라고 안 조르겠다고... 5원짜리 인생이 되길 싫다고... 이제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큰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장희** 현재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정책자문위원, 광진 I WILL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아 인터넷게임중독예방과 학부모교육을 위한 정책자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교육 민간기관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www.norimedia.com, 전화 02-2637-8725)’의 소장을 맡아 청소년, 부모, 상담전문가, 교사 등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영상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나누며 기쁘게 일하고 있다. 저서로 『공부의 집중력을 확 높이는 우리 아이 게임 절제력』(2010년, 마더북스), 『인터넷 게임 세상 스스로 지킨다』(2011년, 놀이미디어) 등이 있다.





##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게임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수많은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부모, 교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사명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존, 발달, 참여, 보호의 권리들은 아동·청소년들의 놀이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지도자(교회지도자)들을 돕는다.

###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가치

1.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한다.
2. 문화산업사회에서 주체적인 생비자(生費者)를 양성한다.
3.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 사역을 지향한다.
4.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

###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주요사업

1.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원과 대안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원과 대안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사회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원과 대안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아동·청소년의 놀이미디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유해 놀이미디어 경보발령
5. 정부의 '놀이미디어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감시, 비판 및 대안제시

###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150-0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가길 12, 203호(봉천동, 현경플레이스) 전화 02) 2637-8725 팩스 02) 2637-8722 이메일 center@norimedia.com

## 2G Re2G 앱

으로 자녀를 키우는  
100만 부모 클럽

안 사주면 시달리고, 사주면 그 순간부터  
후회하는 스마트폰 고민 완전 해결!!!

Download

**Re2G 란?**  
Relationship 싸우지 않으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Empowerment 부모의 관심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통제력을 키우며  
2G 무기력과 중독으로부터  
자녀세대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선택!

**100만 부모클럽에 가입하고,  
Re2G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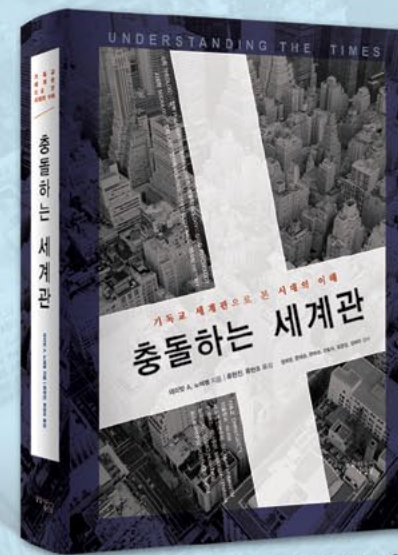
1. 100만 부모 클럽에(www.re2g.kr) 접속하거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url) <부모용 re2g 앱>을 먼저 부모의 폰에 설치한다.
2. 부모의 폰에 앱을 설치할 때, 100만 부모 클럽에 회원 가입(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후 후원 방법을 선택한다.
3. <자녀용 re2g 앱>을 자녀의 폰에 설치한 후 부모가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4. 다시 부모용 앱을 실행한 후에 자녀와 충분히 협의하여 ①사용시간대 ②일일 사용시간 총량, ③항상 허용과 차단앱 등을 설정한다.
5. 설정이 완료되면 앱 하단 게시판에 100만 부모클럽 회원 인증 글을 남기고, APP 소개 페이지를 통해 지인들에게 re2g 100만부모클럽을 소개하고 앱을 사용하도록 추천한다. (안드로이드용 앱을 먼저 출시합니다. 애플 사용자는 3월말 출시예정입니다. 다만, 자녀가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re2g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100만 부모클럽의 사역과 활동을 위해 후원을 선택하신 회원은 별도의 cms 후원신청 양식을 작성한다.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 2G(퍼차폰)로  
키우기로 결단하는 부모들은 100만부모 클럽  
(re2g.kr)에 직접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부모클럽 연락처 02) 2637-8726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시대의 이해

# 충돌하는 세계관



데이빗 A. 노에벨 지음 | 류현진, 류현호 옮김 | 정가 35,000원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이 책은 서로 경쟁하는 세계관들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기독교인과 기독교 청년들이 비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이념과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을 초래한 비성경적, 비현실적, 더 나아가 실재에 관한 비논리적인 가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주제** 신학 / 철학 / 윤리학 / 생물학 / 심리학 / 사회학 / 법학 / 정치학 / 경제학 / 역사학

**대표적 세계관** 기독교 / 이슬람교 / 세속적 인본주의 / 뉴에이지 / 마르크스-레닌주의 / 포스트모던주의

저자 데이빗 A. 노에벨,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한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기 위한  
세계관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는지 아는가!”

《충돌하는 세계관》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망원경과 현미경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이념이며 《충돌하는 세계관》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념들을 거론합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여러 세계관들을 비교해 본다면 궁극적 선택은 오로지 하나 즉,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David A. Noebel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cupbooks.com 02) 745-7231

## 참된 영적 도약을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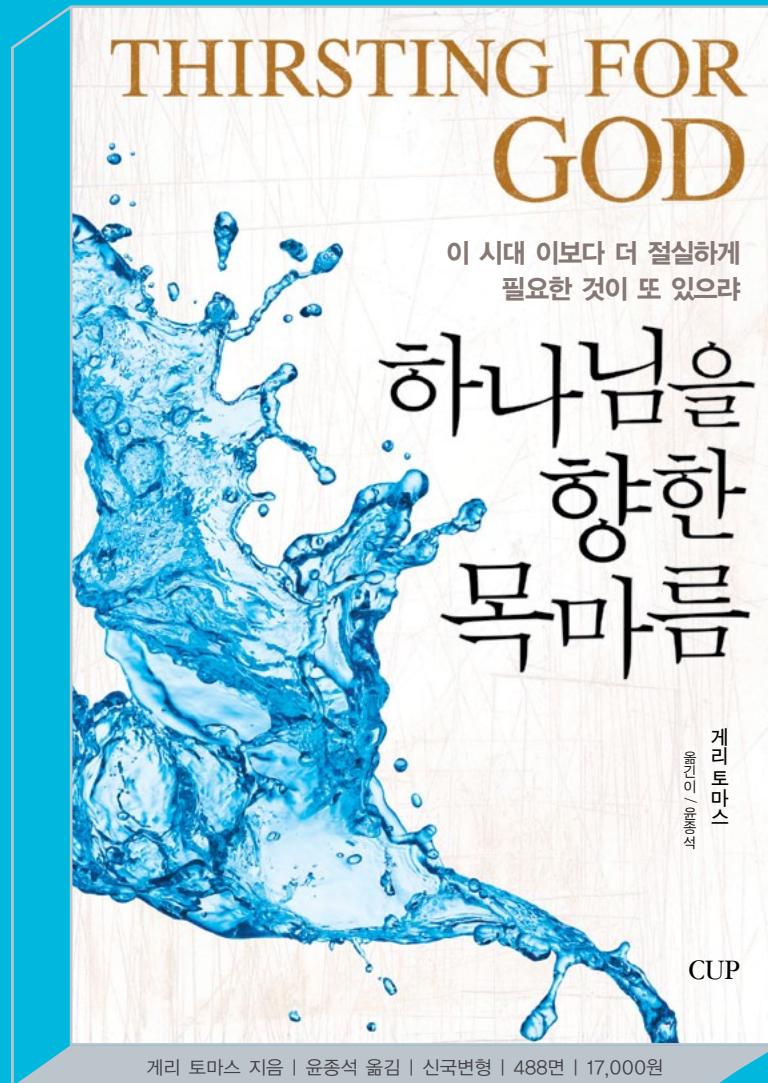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를  
삶으로 녹여낸 업그레이드판 드디어 출간되다

스테디셀러로 사랑 받고 있는 게리 토마스의 처녀작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20년의 내공을 담아 전면개정증보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또 한번 독자의 영성을 강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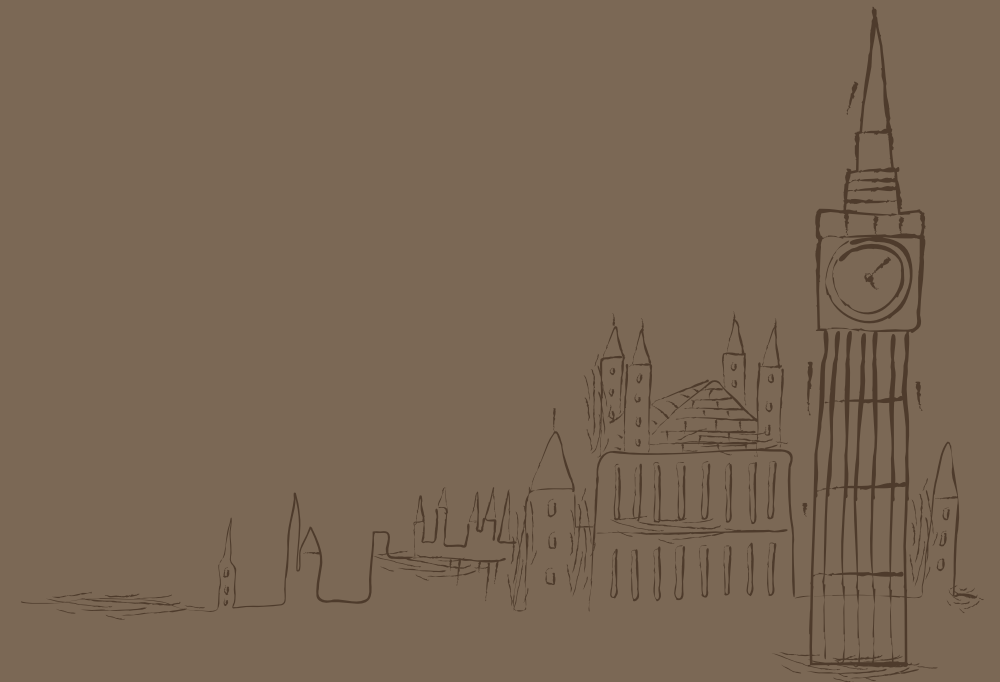
꼭 읽어야 하는 수십 권의 기독교 고전에서 영적 지혜를 뽑아낸 탁월한 책 이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 수십 권의 고전을 관통한 놀라운 책이다. 고금을 아우른 영적 거장들과 저자의 삶의 연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하나님을 향한 이기적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대한 공감이다. 영적 패스트푸드로 연명하는 삶에 지쳤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영혼의 수술! 광야에서 살아남고 행동하라 허약하나, 몸집만 거대해진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필수과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다. 세상을 비워 내고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산다.



# WORLDVIEW COLUMN



## 연재칼럼

배낭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영국, 문화 변혁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나의 믿음, 나의 작품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미술운동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만든 생각훈련 길라잡이  
재미있게 생각하며 읽다보면  
신앙도, 생각도 쑥쑥 자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다

유경상 지음 | 4 · 6배판 | 전면칼라판 | 15,000원





## 영국, 문화 변혁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WYSOCS (West Yorkshir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www.wysocs.org.uk](http://www.wysocs.org.uk))

국제 개혁주의 신행협회

☞ 최용준 (한동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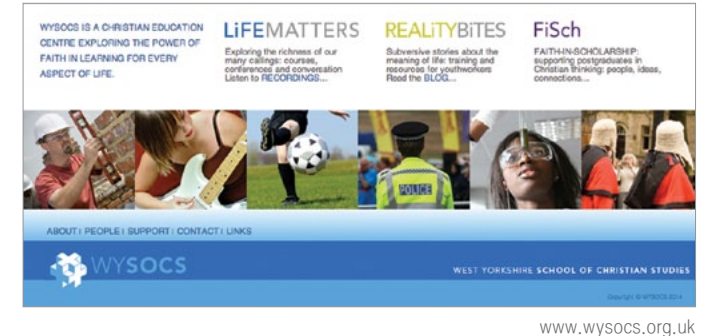


※ 본 칼럼은 격월로 연재됩니다.

기독교육센터인 WYSOCS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학문과 신앙의 힘을 탐구한다. 1986년에 웨스트 요크셔 기독교문 학교로 시작한 WYSOCS는 국제 개혁주의 신행협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전통에 서있는 개혁 철학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WYSOCS는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지금까지 140여 회의 교육적인 행사와 과정을 진행해왔다.

위 사이트는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WYSOCS는 기독교육센터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WYSOCS는 브래드포드(Bradford)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던 데이비드 리옹(David Lyon)과 루트 한슨(Ruth Hanson)에 의해 1986년에 설립되었다. 리옹이 LICC(London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에서 강의할 때, 존 스토틀(John Stott)가 현대 생활의 성경적 참여를 위해 영국 북쪽에 센터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

WYSOCS는 자기 분야의 권위자면서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개발한 교사들을 찾는다. 모든 영역의 연구와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기독교학자들을 환영한다. 특히 -아마



영국에서 유일하게 - 체계적인 기독교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찾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계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속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경우,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깊은 비판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개혁 철학의 비환원주의적 접근 방식을 발견했다. '성경적 드라마'에 관한 데이비드 리옹의 세미나는 루트의 남편인 데이비드 한슨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데이비드 리옹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 리즈에 있는 한슨 부부의 집 - 본래 기독교 노동 개혁자 리처드 외스틀러(Richard Oastler: 1789-1861)가 살던 곳-이 WYSOCS 미팅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 아웃우드 하우스(Outwood House)와 축사는 그 후 수많은 강연과, 콘서트, 미술 전시회, 영화 관람, 라운드 테이블 토론 및 심포지엄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WYSOCS는 '국제 개혁주의 신행협회'(IARF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formed Faith and Action)와 전 세계 기독교학자들과의 연계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한슨 부부는 1975년 남아공 포체프스트룸 대학에서 열린 기독교 고등교육에 관한 최초의 국제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주요 행사는 1996년에 위대한 선교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주도한 콜로키움이었다. 그는 영국에서도 잘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 변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했다.

기독교육센터인 WYSOCS는 삶과 모든 학문 영역에서 신앙의 힘을 탐구한다.

영국 리즈(Leeds)에 베이스를 두고 있으며,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에 참여하기 원하는 영국 및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LifeMatters([www.wysocs.org.uk/lifematters/](http://www.wysocs.org.uk/lifematters/)) 파트에서는 지역 또는 국제적인 강사들을 초청하여 모든 종류의 주제에 대해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과정들을 진행한다.

일어나는 일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종류의 학문, 직업 및 활동을 포함한다.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회의주의자들에게까지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WYSOCS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적으로 우리 문화를 구속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러한 세계관이 전통적 접근 방식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전도를 위한 강력한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WYSOCS는 아래 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LIFE MATTERS는 천문학, 기후 변화, 역사, 경제학, 예술 등 모든 종류의 주제들에 대해 공개 토론, 컨퍼런스 및 교육 과정을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 및 학자들과 함께 좋은 기독교적 학문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다양하고 부요한 소명을 탐구한다.



REALITY BITES는 삶의 의미에 대한 반전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한다. 현대의 이데올로기들을 폭로하고 세계관들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여러 자료를 통해 교사들, 부모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현대 문화에 심어 새로운 빛과 소금의 세대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특히 이 프로그램([www.realitybites.org.uk](http://www.realitybites.org.uk))은 현대 문화의 담론들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역동적이면서도 적절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철학과 종교를 가르친 바 있는 마크 로크(Mark Roques)가 여러 컨퍼런스, 청소년 훈련 및 학교 행사 등에 초청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FAITH-IN-SCHOLARSHIP(FiSch)은 대학원생들이 기독교적 사고를 하도록 지원한다. *FiSch Fellows*는 영국의 대학생 그룹과 연락하여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교육하며 기독교학자들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독교 학문은 모든 지적 전통에서 좋은 열매를 인정해야 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통찰력과 풍요함을 가져와야 한다. 특별히 더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주제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일관성 있게 접



[www.faithinscholarship.org.uk](http://www.faithinscholarship.org.uk)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www.faithinscholarship.org.uk](http://www.faithinscholarship.org.uk))으로 Eline van Asperen-Smith, Thom Atkinson, Richard Dunning, Richard Gunton 및 Anthony Smith 등 5명의 헌신된 스태프들이 영국의 여러 캠퍼스에서 대학원생 토론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과 더불어 이 사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의 문화, 경제, 정부 및 공동체들에게 소망과 구속을 가져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WYSOCS의 현 비전과 영향력은 기독교학자들 및 학생들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해왔다. 영국에서 개혁주의적인 비전의 필요성은 매우 크며 해외 동역자들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여 계속해서 영국 내외의 여러 사람들, 단체들 그리고 조직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WYSOCS를 섬기는 이들은 David Hanson, Mark Roques, Arthur Jones, Anne Burghgraef, Ruth Hanson 및 Richard Gunton 등이며 연락처는 WYSOCS Outwood House Outwood Lane Horsforth LEEDS LS18 4HR UK이고 전화번호는 +44 (0) 113-258-1569이다. 이 중 리처드 건턴 Richard Gunton 박사는 우리 동역회의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의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모쪼록 우리 동역회가 이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

(협조 : 리처드 건턴 Richard Gunton, WYSOCS 발전 담당자 WYSOCS Development Officer.)



**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공 포체프스트룸(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쾰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및 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ETF)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



##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미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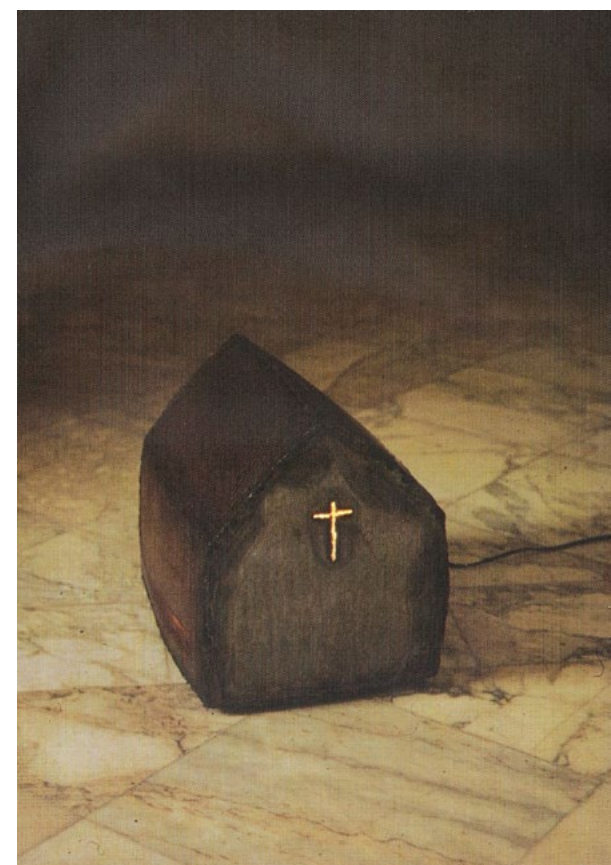
(Mouvement Chrétien d'Arts Plastiques pour le 21ème siècle)

윤성진 (조각가)



1998년 말,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지난 20세기를 회고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술렁이고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독교 작가들이 이런 운동을 했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작가 몇 명이 서쪽으로 40km 지점 세느 강변에 위치한 Vaux sur Seine이란 마을에 모였다. 내가 주관한 모임으로 화가인 이 배, 손 석, 윤영화, (故)고암 이응로 선생님의 아내로 현 대전 고암 미술관 관장이신 박인경 여사, Mosaï를 연상케 하는 점잖은 풍모의 프랑스 작가 Bernard Bouton, 나의 아내이자 조각가인 박상숙, 이렇게 7명이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인경 여사가 제일 연장자였고, M. Bouton은 50대, 나와 다른 멤버들은 40대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이었다.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당시 온누리교회에 계셨던 박담희 목사님과 사모이신 갤러리 서미의 홍송원 사장이 동참해 주셨다.

뚜렷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작가들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작품세계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을 왜 어렵게 여기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 미술계는 그 바탕이 비기독교적인 철학이거나 아예 반기독교적이어서 자칫 기독교 신앙을 드러냈다가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유럽에서는 수세기를 걸쳐 발전한 인본주의 철학과 20세기에 발달한 과학의 영향으로 성경은 신화 같은 실재하지 않는 이야기거리로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들에게 중세의 기독교 문화는 껍데기만 남은 유적, 구경거리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의 인문학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인권이라든가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박상숙, 휴식, 2000, 35X30X50cm, 철, 전등, 소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 미술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아방가르드의 성격이 중시되면서 오히려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품을 영성을 통하여 감상하려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해도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릴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믿음 가운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90년대 이후 미술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조가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희랍 종교 수많은 신 중 '알지 못하는 신'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전하려 한 것처럼(행 17:16-23),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을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21세기 미술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미술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세우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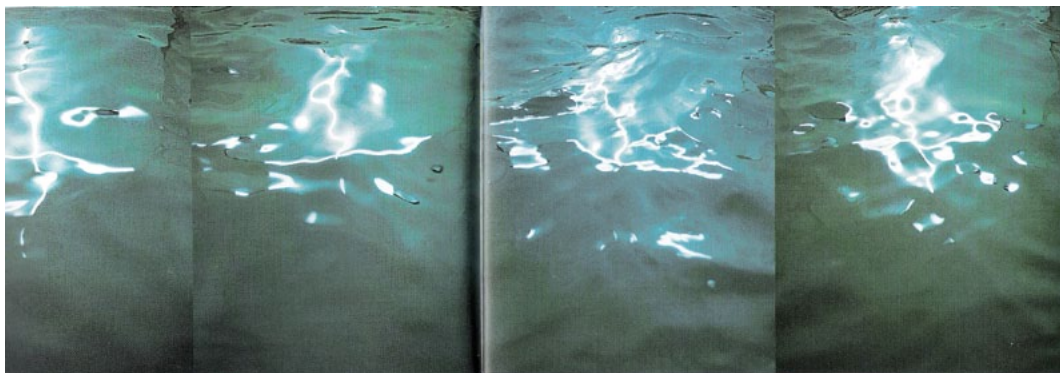
작품의 형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독교 형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앙과 영성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을 하던가, 기독교적 명제가 확실한 작품을 하던가 작가 각자가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며 분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일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면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힘을 모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작은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수 정예로 하고 점차 우리의 뜻을 넓혀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모임을 이끌기 위하여 회장은 내가, 총무는 가장 젊은 운영화가 맡기로 하였고 수차례 모임을 통해 힘을 모아 2000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 파리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전시회에 매우 적합한 곳을 찾아 주셨다. 아무데서나 할 수도 없고 이름 있는 상업화랑에서 이 전시를 열어줄 리도 없었다. 여러 곳을 찾아 다니며 고심하던 중, 우연히 한 전시공간을 발견하였다. 파리의 중심인 파리시청 바로 옆쪽에 있는 루터교 교회의 아름다운 회랑이었다(Cloître des Billettes-24, rue des Archives, 75004 Paris). 그곳은 파리의 중요 유적지 중 하나로 수많은 행인과 여행객



손석, 기다림, 1999, 100X100cm,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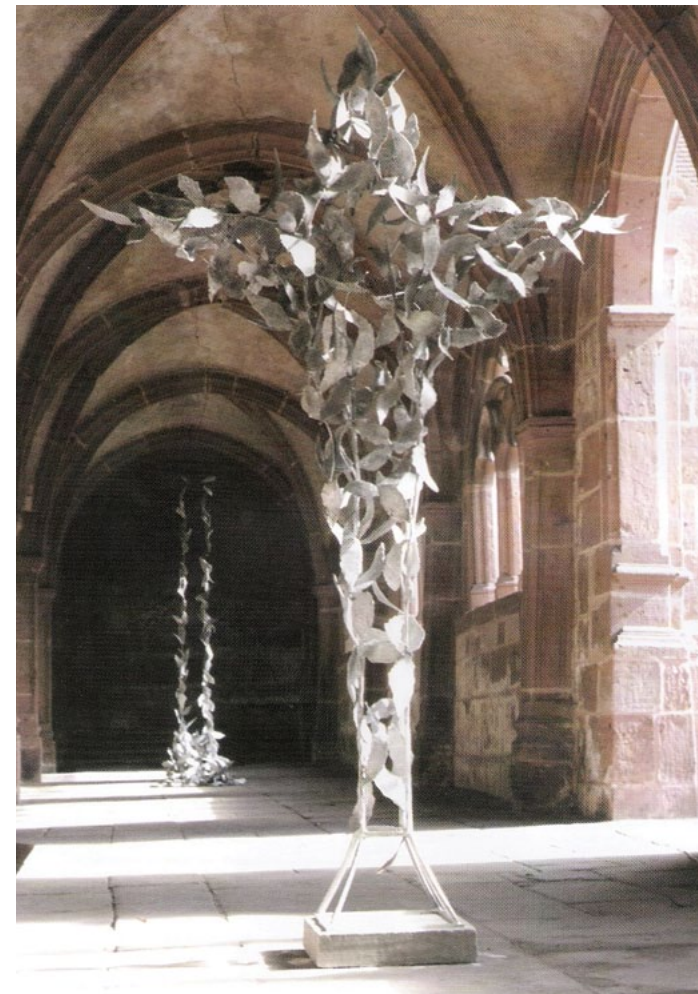
이 지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으며 큰길에서 회랑으로 직접 통하는 문이 있고 회랑 사방이 벽으로 둘러져 있어서 그림을 걸기에 적합했다. 회랑 중앙의 정원에는 조각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가끔 Tapis 장사들이 빌려서 Tapis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보았었는데 아무도 미술 전시장으로 사용할 생각은 못했던 곳이다. 교회의 담당자를 만나 우리의 전시회를 설명하니 반가워했다. 장사꾼에게 교회 일부를 대여하며 찜찜하던 차에 기독교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반 현대미술 작가들은 교회라서 하라고 해도 안하는 곳이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파리에서 호모들이 모이는 중심 지역인지라 전도지라도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전시회를 관



이 배, 영적 감수성, 2000, 110X150cm 4개, 종이위에 묵탄

람하던 젊은 호모 부부(?)가 작품을 감상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일이 생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더니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정말 교회를 갔는지, 이혼을 하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결과는 어떤 갤러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주위의 교회나 친지들의 축하와 격려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작가들이 비용을 내가며 지속적으로 계몽적인 전시를 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상업적인 갤러리를 만들어 일반 현대미술을 취급하며 그 안에 기독교 미술을 끼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파리 화랑의 중심인 피카소 미술관 앞에 갤러리 루멘(LUMEN-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Lumen Christi라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따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뜻)이라는 화랑을 열게 되었다(20, rue de Thorigny, 75003 Paris). 교포들이 한국인이 이런 곳에서 화랑을



윤성진, 생명나무십자가, 1999, h 230cm, 알루미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럽다며 감탄하는 좋은 자리였다. 재정적인 부담이 컸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틈틈이 기독교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의 기독교 현대미술', '예수님의 얼굴', '흠어진 나그네', '성령의 빛' 등의 전시회를 기획,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미술운동'의 뜻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처음에 참여했던 작가 외에 박인경, 안동숙, 권순철, 진유영, 홍순모, 오의석, 김용식, 권여현, 조 환, 류승환, 박병훈, 권순학 등 한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독교 작가들도 초대하였다. 특별한 일도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 현대미술'이란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을 때, 파리장로교회 이극범 목사님이 마침 옥한흠 목사님이 파리에 오시는데 옥 목사님이 사진작업을 많이 하시니 작가로 데뷔시켜 드리자고 제안하셨다. 전시장에 오셔서 부끄럽다고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던 옥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첫 전시회가 2000년 5월이었으니 벌써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일에 전심을 다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러나 처음 이 운동에 동참한 이 배, 손 석 등이 성공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었으며, 윤영화는 고신대학 교수가 되어 귀국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박인경 여사도 고암 선생님 추모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니 하나님도 이 운동을 기뻐하신다고 여겨진다.

14년 전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 글을 쓰면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때에 품었던 뜻을 다시 한 번 크게 일켜 세우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때보다 신앙이나 작품의 기량 등 모두들 성숙하여졌을 터이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강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꾀 본다.



위\_윤영화, 열림2, 1999, 153X102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철분  
아래\_Bernard Bouton, 회랑, 1998, 50X15X30cm, 돌, 모자이크, 프레스코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서 갤러리 뤼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 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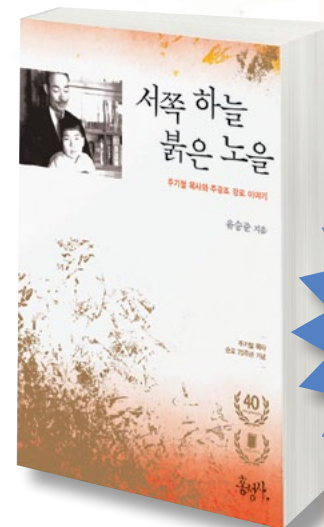
#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기철 목사와 주광조 장로 이야기

순교자의 가족이 겪어 낸 질곡  
그리고 회복의 은총!  
의에 살고 의에 죽은 아버지,  
그의 빛과 그림자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주기철 목사와 그의 아들 주광조 장로의  
발자취를 좇아 전국을 누비며  
가슴에 담아 본 행적

유승준 지음 | A5변형 | 392면 | 15,000원



주기철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출간!

※책 표지를 벗겨 펼치면 주기철 목사의 명설교 〈일사각오〉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sbooks.com>



# 하나님 편에 서라:

공동선은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창호 (장신대 교수)

월리스의 '그리스도인 됨'을 공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에 두려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 힘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받은 이들로,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으로 통치되는 온 세계에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정치, 이념, 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분명한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신앙을 실천하는 신자인 것이다(31). 이 책에서 월리스는 우리 시대 참된 신앙의 척도로 '공동선의 헌신'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기독교'라는 중차대한 개념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실천적 이유와 논거를 탁월하게 펼치고 있다. 기독교와 공동선이라는 주제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살피면서, 월리스의 기여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의 공동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

고 그 담론과 실천의 지평을 확장했다. 기독교 공동선 전통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은 어거스틴(St. Augustine)이다. 공동선 전통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동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근본은 '사랑'이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기독교 사랑의 대상은 포괄적이다. 기독교 사랑에 대한 어거스틴의 사회·윤리적 이해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거스틴의 '두 도성'론을 생각해 보자. 신의 도성과 세속 도성은 대립 관계에 있지만,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평화이다. 세속 도성은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기본 조건으로서, 신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상 순례의 필요 조건으로서 평화를 소망한다. 그러나 후자는 완전한 평화로 천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추구하는 선(善)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차이를 감안하면서도, 어거스틴은 두 도성 사이에 공동의 기반을 상정한다. 다시 말해, 두 도성 모두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사람들에게 세속 도성의 법에 충실하라고 권고한다. 여기에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 지상의 순례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어거스틴은 정치적 체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하나님은 그러한 체제들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법과 악행을 제어하시고, 인간의 공동체적 실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신다. 요컨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지평을 존중하는 구원사적 구도 안에서, '신의 도성'과 '세속 도성'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적 실존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들에 관한 어떤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조건들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지의 지향들 혹은 사랑의 지향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결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월리스는 어거스틴의 공동선·지향적 사회윤리를 계승·발전시킨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월리스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어거스틴적 '공동의 기반'을 역설한다. "종교는 사람들을 이끌 때, 다시 말해 자신의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돌볼 때, 그리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최선의 영감과 상식을 활용해 모든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때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32) 그러기에 공동선을 위해서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필요하다. 월리

저자 짐 월리스 | 역자 박세혁 | IVP

## 하나님 편에 서라

공동선은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악인이냐는 편입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 제1000회 출간

짐 월리스 | 박세혁 역



스는 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개인의 책임성이라는 윤리적 관념과 진보주의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념이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의 요소들로서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증오에 찬 갈등을 종식시키고, 양측 모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47-48)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개신교와 가톨릭, 기독교와 이슬람 등 신앙적·신학적·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전체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는 점을 월리스는 강조한다. 특별히 월리스는 이러한 공동선 추구에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한다.



둘째, 특수주의적 구원론 확장을 섭리론의 관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기독교 사회윤리의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강화했다. 기독교 구원론의 특수주의적 확장을 시도한 대표적 신학자는 바르트(Karl Barth)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목적에 상응하여 화해와 사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십자가에 드러난 아가페 사랑은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라는 특수 관계 안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구현된 이야기와 설교, 상징에 의해 오랜 기간 영감을 받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르트 신학이다. “이웃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 개념이 원리의 측면에서 인류를 향한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은 “항상 구원의 역사의 틀 안에서 내가 만나고 또 연합해야 할 동료 인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사랑에 근거한 확장성은 바르트에게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다. 핵심적 조건은 문 밖에 있는 이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기꺼이(자발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아가페는 자유주의적 보편 구원론으로부터 독립적 위치를 고수하며, 고유한 기독교 신앙 고백과 공동체적 실체라는 조건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배타성을 견지할 때, 결국 그것에 안정적 지속성을 부여할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보편적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 자아 · 이웃의 삼위일체적 상호 관계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역설한다.

바르트가 구원론의 특수주의적 확장에 기여했다면, 윌리스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의 포괄성과 예수님의 이웃 사랑 윤리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기독교 사회윤리의 토대를 확장한다. 윌리스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모든 인위적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명령으로 해석한다. “모든 사회는 경계 - 자신과 ‘타자’ 사이의 장벽 - 를 만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 · 인종적 · 종교적 · 지역적 · 종족적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웃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며, 이 급진적인 관념은 공동선이라는 사상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선을 위한 영적 기초이다.”(171) 그러므로 공동선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헌신은 ‘모든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며(200), 이러한 헌신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윌리스는 기독교 사랑의 보편성을 구원론적 · 교회론적 지평에서 바라보는 바르트를 품으면서, 신론적 명제와 예수님의 이웃 사랑 윤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교회는 ‘모든 종족을 환영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187-215).

셋째, 교회가 공동선 구현의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여 교회론 성숙에 기여하였다. 여기서 기독교공동체주의자인 요더(John Howard Yoder)를 생각한다. 요더에게 교회의 사명이란 복음적 목적들의 실현을 통해, 교회 신앙의 우선성(primacy)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더의 복음화 개념은 개인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도, 그렇다고 전면적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복음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내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밖으로는 사회의 실재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되고자 한다. 영혼 구원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건설과 연결된다. 요더는 교회를 정치적 대안공동체(counter-

politics)로 이해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폭력적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 사명의 중심 혹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요더의 정치적 대안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저항의 교회론이 아니다. 요더에 따르면, 교회가 무저항의 사랑으로 사회적 영향(social leverage)을 끼칠 수 있는데, 이는 고유한 정신과 문화를 ‘구현하여 보여줌’(embody and show)으로써 가능하다.

윌리스의 교회론은 요더의 ‘대안으로서의 교회됨’을 공유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교회는 단순히 ‘구현하고 보여줌’으로써가 아니라, 공적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대안됨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부 ‘공동선을 위한 실천’은 주목할 만하다. 윌리스는 이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민적 교양과 덕성의 문제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공동체 그리고 세계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선을 구현할 것인지 도덕적 기초뿐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슈퍼팩(Super-PAC)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민주주의를 돈의 지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9장 ‘민주주의 구속하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들을 통제 ·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10장 ‘경제적 신뢰’),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논쟁을 넘어 ‘섬기는 정부’론을 전개한다(11장 ‘섬기는 정부’). 아울러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 불의를 치유하기 위해 자선적 실천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에도 힘써야 한다고 촉구한다(12장 ‘잘못을 바로잡으라’). 마지막 장은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이다. 윌리스가 공동선을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영역은 개별 시민사회나 하나의 국가공동체에 머물지 않는다. 인류가 구성하는 모든 정치사회 공동체,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피조세계를 포괄한다. 그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도전한다. 헌신하되 기도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 실천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쓸 수도 있다. 그러기에 윌리스의 사회윤리는 영역의 관점에서 교회의 안과 밖을 포괄하고 윤리실천의 관점에서 개인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망라하여 ‘공동선을 지향하는 통전적, 총체적 사회윤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글을 맺으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 시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 시대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탄식의 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윌리스의 도전과 격려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좁은 ‘우리’를 위한 삶을 탈피하고 교회의 안과 밖 ‘모두’를 위한 공동선에 헌신하십시오.” 시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사람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강추’하는 바이다.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Th.B., 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을 거쳐 미국 Yale University(S.T.M., Ph.D.)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조교수(기독교와 문화)로 섬기고 있다.

# iGods

## 아이갓

권오병 (경희대 교수)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이 문제는 과학철학의 전통적인 논제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그 확산 속도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이다. 이런 종류의 책을 접할 때, 우리는 정보통신의 긍정성과 부정성 중 어느 쪽을 부각시키는 책인지 궁금해한다. 그런 면에서 〈아이갓〉(iGod)이라는 제목은 비판적인 시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책을 펼치면, 정보통신기술을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보는 저자의 독특한 시각이 흥미롭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교회 수호 관점에서의 경계심 외에 정보통신기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제3의 노력이 다. 그리고 이 노력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정보사회 속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동시에 풍성케 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하나님과 기술의 관계성을 정립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기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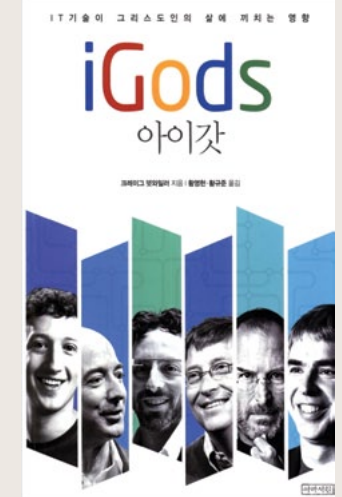
까. 그는, ‘하나님은 장인이시며 기술자로 비유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의 풍성함을 위해 기술자로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직전까지 목수의 아들이셨음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다스리는 문화 사역을 위해 얼마든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성경 보급과 수많은 교회의 출현에 기여했다.

다음으로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더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관념에 따라 기술은 예술, 과학, 유혹, 독재자,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견고한 신앙이 없으면 기술은 언제든지 독재자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기술 자체에 그런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관념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우리의 무지, 죄성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술로 만들어질 또 하나의 바벨탑, 즉 무신론적 이상 사회 실현에 가담하는 수많은 일꾼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을 우상, 즉 아이갓으로 보는 그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저자는 기술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그것에 눈이 멀거나 매여 살지 않게, 즉 우상화하지 않도록 그들의 관념을 바꾸어 줄 선교적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본서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한 정보통신 서비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부터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고민거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실리콘 벨리의 아이갓들을 지적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정보통신 사회의 젊은이들은 대개 관심 밖의 담론을 부담스러워 한다. 사도 바울과 아테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아데미 여신과 관련하여 일어난 폭동,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인되어 스스로 우상이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들... 오늘날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재들에 그다지 감동이 없다. 그러한 우상들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아이갓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갓들의 위력을 체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우상들을 향해 저자는 용감하게 손을 들었다. 아이갓들과 그들의 제품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술의 우주적 효용을 믿는 이른바 기술 신비주의자와 그 위력을 맞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자의 시도가 무모하게 보일만큼 이 책은 의미 있고 재미있다.

저자 크레이그 멧와일러  
| 역자 황영현, 황규준 | 아바서원



본서의 또 다른 매력은 마치 전 공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글들은 일반 정보통신 혹은 정보경영학 강의 시간에 인용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디테일하다. 기술을 상식 수준이나 어깨 너머로 파악한 후 기술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상상력을 더하여 막연히 써내려간 책과는 크게 차별된다. 따라서 신홍종교가 될 수 있다는 아이갓들에 대한 경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저자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2장부터 8장까지 가장 유명한 정보서비스 회사의 최근 사례를 총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제2장 “애플: 먼저 외양이 아름다워야 한다”에서는 애플이 만든 심미적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의성의 산물로 평가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명령어 기반의 IBM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미학적으로 압도한다. 유려한 폰트 창작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또한 지나치면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애플의 창작품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에게도 전원을 끄는 힘을 기를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애플의 미학과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실 교회에도 예배 중 소리와 찬양, 성스러운 문양 등 온갖 아름다움이 있으니 말이다.

저자는 제3장에서 인터넷의 발자취를 요약해 주는 기지를 발휘한 다음, 제4장 “아마존: 풍요로운 온라인 쇼핑시대를 열다”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저자는 신속하게 출판되어 킨들 스토어에 진열되어 있는 온라인 서적들을 보며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상한다. 또한 추천 메커니즘이나 원클릭 결제, 방대한 콘텐츠 등 개인화된 쇼핑 방법이 아마존을 선호하게 함을 목도하면서, 문득 개인화된 쇼핑 정신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떠올린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시설과 서비스뿐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와 제자훈련 프로그램마저 교회 선택의 요소로 인식해 버리는 교회 쇼핑객들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아마존의 정신, 어쩌면 아마존을 만들게 한 시대정신이 교회의 거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번영복

음보다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주신 풍요의 복음을 제안한다.

제5장은 “구글: 검색 알고리즘으로 세계를 지배하다”이다. 구글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정리한다’는 비전으로 지메일과 각종 검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우리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간명한 정보를 정리해내는 이른바 빅데이터의 선두주자가 되어, 마치 혼돈 속에서 질서 잡힌 천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그러한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웹을 소유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오히려 구글 자신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 구글이 각종 뉴스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나 정보 권력이 구글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가 개인정보이므로, 구글 내부에서 이 개인정보로 어떤 프로젝트를 벌일지 알 수 없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제6장에서는 친절하게 소셜네트워킹의 개념 및 역사 소개 그리고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논제를 던진 후, 제7장 “페이스북: 진정한 친구인가, 진짜 원수인가?”로 넘어간다. 페이스북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다. 어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대하는 관념과 통제권, 사용의도의 문제이다. 즉, 페이스북은 필요하면서도 성가신 친구, 또는 심지어 혐오스러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개인주의 시대에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바

쁜 시대에 효율적으로 인관관계를 형성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하지만 자신을 과시하려는 나르시스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거나 관음증을 가진 사람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분별한 자기 과시는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 사회를 서서히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페이스북을 선용할 것인지는 교회의 과제이다. 제8장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청중에서 참여자로”에서는 먼저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가 확산적 네트워크이며 청중들을 모으고 참여를 격려하는 곳을 상기시킨다. 이어서 참여자로 승격한 군중이 때로 예수님을 공격한 집단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도 교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소셜네트워크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유행을 따르고 유명해지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현재의 정보통신기술들이 신앙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 기술들이 주는 모든 약속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정리한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 마음에 우상, 즉 아이갓을 새기는 일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력으로 그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 의도와 목적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 부합하더라도 말이다.



**전요병**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사(BA)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에서 공학석사(MS) 및 박사(Ph.D.)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영정보시스템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데이터분석 분야에 10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한동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그는 현재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다.

# 기독교 세계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WORLDVIEW. 과연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으로 조망하는 세계관 운동,  
그 시작과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논하기  
위해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수장들이 모였다.

사회 : 조성표 (실행위원장)



김승욱

저는 세계관은 일종의 조직신학이라 봅니다. 그렇  
다면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19세기의 오를 세계관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지 궁  
금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  
국 조직신학으로 본다는 것인데 시작이 그 이전이 되어야 하  
지 않을까요?



양승훈

물론 어거스틴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깊은 뿌리이구요. 계몽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변증  
내지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오르가 가장 구체적으로 구조와 전  
락을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야  
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지만, 그 중에서 세계관 운동의 특  
특한 점은 회복된 창조세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김승욱

그럼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창조에 대한 입장이  
다른가요.

## 세계관의 시작. 언제, 어디로 볼 것인가?

양승훈

저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인 오르(James  
Orr 1844-1913)가 세계관 구조의 직접적인 뿌리라  
고 생각합니다. 1893년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  
라는 강의를에서 반기독교적 시대정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실재에 대한 새롭고 일관성 있으며 포괄적인 기독교적 정의  
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세부사항에 대한 반대가 아닌 원리  
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세계관(Weltanschauung)을 모든 진  
리를 살아있는 전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더 고차  
원적인 체계라고 보면서, 세계관적 접근의 유익에 대해 강조  
했습니다.



양승훈

그들도 강조를 했지만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칼  
빈은 특별히 세상을 개혁하려 했고,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세  
상을 개혁하려 했던 칼빈의 경우, 창  
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김승욱

칼빈은 사회 문제를 강조  
했고, 그 뿌리를 어거스틴  
에서 찾더군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본  
다면 이 운동의 역사성이 19세기 독일  
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봉호

서양의 사상사에서 19세기까지는 "서양사상 즉 기독교사상"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지 그 사상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  
나 양 교수님이 계몽주의를 언급했지만 계몽주의 시대부터 반 기독교적 정서가 생겨  
나기 시작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9세기 들어와서 상대주의가 생겨났어요. 쇼펜  
하우어, 니체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성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상대주의가 생겨나기 시  
작합니다. 그때 생겨난 게 "Weltanschauung(세계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인본주의와 기독교적 관점을 하나로 뭉뚱그려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네덜란드 카  
이퍼가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휴머니즘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은 따로 있다." 고 주  
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바탕은 칼빈, 루터, 어거스틴 등의 가르침에 있지만, 인본  
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것에는 벌써 상대주의적인 요소가 들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eltanschauung이라는 단어가 이미 상대주의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세계관 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  
는 뭐든 설명하면 그 자체가 기독교적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독일을 예로  
들어서 신학과가 주립대학 안에 있었어요. 그건 대학이 곧 기독교대학이다 이런 생각  
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대학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기독

## 과연 세계관이 19세기 언어의 산물인가?





교대학이라니, 모든 대학이 기독교대학인데 무슨 기독교대학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퍼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휴머니즘이다 한 거죠. 그래서 19세기부터 그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준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세계관의 구조, 즉 창조, 타락, 구속이 일종의 거대 담론, 성경에 있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계관' 하면 철학적인 느낌이 강하고, 일차적으로 느낌보다는 생각으로 가는 한 단계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의 주제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통합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서 그걸 강조하면 기독교인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까,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적 세계관을 선명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국원**

창조, 타락, 구속을 종합하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 그래서 사실 알버트 월터스 같은 경우 'Creation Regained'('창조, 타락, 구속'의 영서제목)라는 대학생들 스터디 그룹에서 3~4주 공부하기 위해 주제를 뽑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도서관에서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 책으로 세계관을 다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고hini가 그 책을 냈다 비판을 한 거예요. "이게 철학책같이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월터스가 "그럼 네 대안은 뭐냐" 하니깐 바로 "내러티브 식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나온 책이 『성경은 드라마다』(The Drama of Scripture) 라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도에베르트처럼 어떤 체계를 간추려서 내놓는 방법이 있고,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듯이 포괄적으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살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요, 저는 후자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조, 타락, 구속 방식은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모아지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유익이 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세계관 가르칠 때, 맨 나중에 딱 한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그리고 그 나라 위에서, 현실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양승훈**

용어를 달리 사용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사람들마다 분야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손봉호**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너무 세속적이 되니까, 뚜렷하게 비기독교적으로 드러나니까.

**신국원**

명시적으로 Weltanschauung이 됐든 Worldview가 됐든 그걸 누가 먼저 썼느냐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요즘 초대교회의 교부들 문헌들을 꼭 읽는데 좀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터툴리안(Tertullianus)이나 클레멘트(Clement)나 저스틴 마티(Justin Martyr) 같은 사람들이 그냥 소박한 목사들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 과장을 하자면 이 사람들이 플라톤 시대에 있었으면 플라톤에 버금갈 수 있는 지성인들이겠다 싶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그들의

원전에는 철학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고 그걸 넘어서 기독교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관과의 싸움이라고요. 어떤 면의 생명력을 잃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전통이고 그게 진리다시피한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하는데 그 책들이 절절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냥 나오는데 아니고, 그 앞에 벌써 400년 이상의 축적되어 있는 지적 유산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승욱 교수님이 얘기하시던 것처럼 세계관 운동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데 사실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일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스틴 마티와 트라이포의 대화인데,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헬라 철학자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왜 하구인가까지 문헌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거든요. 플라톤에 정통한 어거스틴(Augustin)이 플라톤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성육신(incarnation), 삼위일체(Trinity)인데 이 둘 다 헬라 사람으로선 도저히 삼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역사관을 나중에 소위 말하는 부수는 싸움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뿌리는 결국 복음에 부딪혀 어느 시대에, 어떤 싸움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시대와 문화에 파급되는 것들에 대한 좌절감, 어떤 면에 이미 이전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상실되어있던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세계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시대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엔 오히려 지적인 싸움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반기독교적인 사상가들과 지적인 토론을 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공동체의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개인으로선 존중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관만으로는 참 어떨 때는 웅색할 때가 많습니다.

**김승욱** 교회와 공동체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비판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신국원** 교회의 자기비판과 더불어 대안까지 있어야 해요. 그게 그냥 그래 교회가 잘못이다, 미안하다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대안적인 교회가 있긴 있어야 돼요.

**손봉호** 죽어야지요. 카이퍼 시대에는 창조가 중요했지만, 나는 카이퍼의 약점이 십자가가 너무 약화  
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말바닥으로 내려가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삽니다. 지금은 강대상에 비스킷이 너무 많아서 코끼리들이 강대  
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비스킷이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적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카이퍼 시대에는 휴머니즘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는 휴머니즘에 대한 투쟁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한국 교회는 도덕이라 생각해요.

**김승욱** 지금까지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 교회 비판은 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나 교회갱신협의회 등이 잘하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겠군요?

**손봉호** 그렇게 되면 허수아비를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세계관 운동의 가장 큰 적은 이원론 아  
닙니까. 이원론에서 도덕적 타락이 생겨났으니까 이원론만 좀 약화시켜도 도덕적인 효과는  
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물질주의, 즉 돈을 섬기  
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최태연**

앞의 내용에 덧붙이자면, Weltanschauung이라는 철학의 개념을 오르나 카이퍼가 수용해서  
썼잖아요. Weltanschauung을 우리말로 '세계관'이라고 하면 지성적으로 들리는데 독일 전  
통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개념입니다. 오감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탁! 파악한다는 거  
예요. 그 당시에 카이퍼나 오르가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지성주의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체계적인 지식체계에 기독교 교리를, 성경을 체계적으로 지적으로 정리한 면도 있구요. 그게 창조, 타  
락, 구속 이런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반면 분명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직관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종합된 걸로 봐야지 원래부터 "세계관은 지성주의다." 이렇게 보면 안 된  
다는 겁니다.

카이퍼의 자서전을 보면,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의 출발점도 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깨  
달음을 통해 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했거든요.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이 경건신앙, 개혁파 경건신앙의 실재에 부딪혀서 자기가  
깨어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퍼의 마지막 책인 『하나님께 가까이』(Near Unto God)에는  
그의 영적 추구와 사모함이 간절해요. 그런 걸 보면 카이퍼는 분명히 지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그 내면에는 경건과 하나님 체험 등 영성에 대한 추구도 강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  
마나 잘 통합이 되는지는 좀 더 우리가 평가해 봐야겠지만, 우리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개념적으로나,  
카이퍼라는 인물의 삶에서 보듯이 양쪽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성주의나,  
사회적 행동주의,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거나 극단으로 치우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본래 기독교 세  
계관 운동의 출발점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물론 세계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하지요. 그것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거지  
삶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운동은 아니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 단체  
가 학자나 지적인 전문인이 많으니 결국 우리가 단체로써 해야할 세계관 운동의 방향은 결국은 연구나  
교육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에 반혁명당에서 이룩한 가장 큰 이슈는 크리스천도 세금을 내기 때문  
에 기독교 교육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서 관철시켰다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동역회의 역할도 결국은 교육 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학문연  
구가 우리의 특화된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성적으로 흐른다는 비판은 당연히 우  
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커리큘럼 개발  
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확대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해온 세계관 운동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금까지 동역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  
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태연**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한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자체가 지성과 영성,  
또는 경건이 원래부터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신학이랄까 철학이랄까,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양면을 우리가 종합하고 다 수용하는 것은 운동 전략하고는 다릅니다. 삶의 전 영





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차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터키에 큰 영향을 끼친 히즈메트(또는 굴렌)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굉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이슬람 이맘으로 이 사람이 교육에 눈을 뒀습니다. 평화주의자로 청소년들, 청년들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르친 것이 학원으로 발전했고, 20~30년 동안 시골의 수많은 가난한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터키 일류대학도 가고, 정부, 노조 등 각 분야에 들어가서 굉장한 정치적 파워를 갖게 되어 현 수상이 그들을 견제할 정도라고 합니다. 교육 운동이 정치 운동으로 발전한 예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역이 경제나 경영 분야로, 문화 예술 운동으로도 나갈 수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으면 학자들이 많으니까 교육운동, 학문운동이 가장 쉽고 구체화하기 쉽죠.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성표** 교수님은 세계관의 의미를 얘기하신 거고, 그 맥락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판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관의 정의에서 “세계관이란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까지만 되어 있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신국원** 지난 모임에 온 제임스 올타이스(James Olthuis)의 “세계관에 대하여”라는 짧은 논문이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이 간단하게 worldview는 view of the world + view for the world 이렇게 세계관을 정의하는데 그걸 한 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봉호** 인식에 대한 확신이 따라야 세계관이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세계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시험 쳐서 점수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대학 졸업해서 그 대학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성공한 대학은 한동대 하나뿐이지, 기독교 대학이 많이 있지만 신앙 따로, 지식 따로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같이 가려면 교육하는 사람도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학자로서 이론 가지고 가르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을 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기독교적 교육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교육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 쳐서 점수 얻고 나중에 이용하려는 교육이지 삶과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삶과 연결이 되는 교육,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양승훈**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 VIEW 학생 중 하나가 졸업논문으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델을 세 개를 선정해서 연구했는데, 결론은 적당한 고난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예를 들어 BC주 기독교학교 연맹은 반은 국가에서, 반은 학부모가 재정을 지원합니다. 공립학교 주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과서를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티칭 가이드북을 거기서 개발하는데, 수백 개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이 주 교육부에서 준 교재를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를 구체적인 전략들, 자료들, 시청각 교재, 평가, 방법 등 다 개발해놨습니다.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노력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손봉호** 우리는 수능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단순히 감명적인 것,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등 그런 걸 가르치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확실히 믿고 자기도 그리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권위와 효력이 있지, 설교 따로 행동 따로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설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국원** 옛날에는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면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스터디 그룹으로 모이는 거였는데, 요즘은 개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이제는 세계관 운동이라는 단어는 압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쓰면 약이 되는지도 대충 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적으로 의식을 깨우는 일에 이게 도움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몇 교회가 세계관 학교도 하잖아요. 굉장히 잘 됩니다. 목회자가 드라이브를 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적어도 교인들이 따라서 합니다.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엔 와서 섬기라고 합니다. 이게 앉아서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와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그룹 리더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체화가 됩니다.

**손봉호** 그래야 진짜 세계관이죠.

**신국원**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랄까요, 희망이 보이는 사례죠. 재밌는 건 교회를 가서 보면 자생적인 기독교 세계관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한 번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대학 때부터 꾸준히 쪽 해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만 될 수 있으면 한국의 평신도들 가운데 이미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양인평** 저는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시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그 정신으로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유사 기관들과 서로 협의한다든지 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요건이야 뭐 우리 이사장님도 걱정하셨지만, 기독교대안학교 같은 곳은 다들 원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도 있구요. 본격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확산되고, 생활화되고, 구체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성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손봉호** 동역회도 처음에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자는 목적이 아니었고, 철학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철학하자, 과학 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과학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계관 운동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을 실천해 보자는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WORLDVIEW.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세계관 확산을 위한 운동에 많은 관심으로 동역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해주신 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혁의 씨앗을 뿌립니다.

## 기독교세계관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인간, 자연, 역사를 보고 그것에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손봉호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이 하나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3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05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710,000		기타급여	484,250
	일반회비	4,437,500		소계	3,884,250
	기관후원금	4,000,000	경상비	사무실관리비	637,310
	기타후원금	3,914,000		통신비	414,390
	월보구독료	886,000		우편료	70,600
	CTC후원금	290,000		소모품비	12,020
	기타	7,600		비품	1,210,000
				식비	289,700
				복리후생비	816,340
				기타	438,753
	소계	15,295,100		소계	3,889,113
기타수입	기타수입	275,127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660,000
	소계	275,127		CTC후원금	209,725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출판(회지)	소계	869,725
	미디어장학등록	0		월드뷰구입비	2,000,000
	소계	0		발송비	703,83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기타지출	소계	2,703,830
	학술지심사비	140,000		세금 및 기타	0
	학술지게재료	2,322,500		소계	0
	저작권료	1,154,535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비품구입비	146,190
	소계	3,717,035		미디어비품구입비	408,260
당월 수입액		19,287,262		소계	554,450
전월 이월액		45,207,620		학술지인쇄비	0
				학술지발송비	0
				학회기타	301,280
				소계	301,280
			당월 지출액		12,202,648
			차월 이월액		52,292,234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3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0
				소계	1,600,000
	소계	1,550,000	제작비	교정 및 디자인비	1,282,000
				편집비	30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인쇄비	2,369,180
	기타수입	154,970		모바일월드뷰연제작비	1,650,000
				소계	5,601,180
	소계	2,154,970	경상비	복리후생비	606,740
				식비	18,07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기타	389,000		통신비	10,000
	소계	389,000		회의비	17,600
				소계	652,410
			기타지출	세금	252,230
				기타	1,000
당월 수입액		4,093,970		소계	253,230
전월 이월액		58,245,57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291,000
				소계	291,000
			당월 지출액		8,397,820
			차월 이월액		53,941,720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31일 마감)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경휘, 김고운, 김동찬, 김민지, 김병재,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은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준현, 생명의강, 엄지은, 영음사, 이평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일, 황귀희 5천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은경, 김정실, 김정원, 김정준, 김재우, 김 준, 김철수, 김태윤, 김형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승룡, 박진희,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명진, 이민화,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향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범재,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승돈,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 김찬호 7천5백 고상섭, 권상순, 김영숙, 김영환, 김은미, 김효태, 민수진, 박현빈, 방선기, 영암교회,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임아름,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선욱, 고재호,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숙, 김경식,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광순,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범식, 김보경, 김상범, 김성경,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중, 김승남, 김영남, 김요한, 김용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우, 김은혜, 김재연, 김정모, 김중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판임,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홍제, 김효숙, 나동훈, 나윤수, 남서희, 라영환, 류현모, 마민호, 박강국, 박경원, 박기연, 박능인,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성인,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희주, 배인교, 백경은, 백현준, 변희지, 서우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순, 손현탁, 송철호,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진선, 신형균, 신호기, 심인옥,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양행모, 양혜원, 오경옥,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원선희,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하원, 유희진, 윤동수, 윤상현,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계심, 이관철, 이규현, 이길형, 이대규,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희, 이윤규, 이원배,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하원, 이하성, 이하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인숙, 장대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종화,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형, 조재천, 조현용, 조혜경, 조혜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현식,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허 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서, 홍정식, 황규영,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정상섭 1만7천6백 신효영 2만 강대훈, 강용란, 김규욱, 김세광, 김수홍, 김인숙, 김정일, 김정호, 박해경,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소중화, 우시정, 유경숙, 이 건, 이명희, 이인아, 전광학, 조창근, 한화진 2만5천 문석윤 3만 김동원, 김방룡, 김 원, 김윤정,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무성, 최성두, 홍철의 4만 김미영, 오한나, 이종철, 4만4천 강명원, 김규진, 김봉현, 김성준, 김아름, 김영옥, 김재균, 박재원, 박정택, 박정화, 박혜경, 서동우, 서임수, 송현아, 안경환, 안태석, 유종훈, 전득풍, 정우상, 정익식, 조대성, 차정호, 최 윤, 한민좌, 함정은, 현지식 4만5천 이영홍 4만9천 구재환, 김정영, 박상균, 이덕재 5만 김성락, 김시호, 백은미,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한국교회 5만1천5백 이병주 5만4천 김경식, 김경화, 김승호, 김재정, 김정호, 김 혁, 박시운, 박현경, 송종철, 신현주, 이기훈, 이명동, 이윤재, 이은혜, 정용수, 정진우, 허찬영, 홍준호 6만 강진규, 고신대학교도서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도서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도서관 6만4천 김성민, 김용식, 노용환 7만4천 서승학, 최용준, 추태화 8만 권정아 8만4천 강석현 8만8천 김태환, 조성표 9만4천 김민철 10만 김미영, 김원수, 김익원,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홍숙의 13만 박문식 13만2천 강찬진 13만9천5백 김은민 14만2천 David Han 16만2천 김경민 21만 정영록 22만 우재형 24만 강상우 25만 황정진 30만 김승욱

계 11,287,500원

###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연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마포중앙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계 4,000,000원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WORLDVIEW NEWS

### [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가 5월 24일(토) 고신대학교에서 “소통, 화해, 공존”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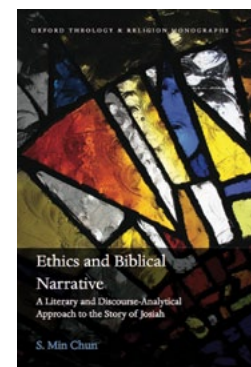
- 주제 소통, 화해, 공존
- 기조강연 허문영 (통일연구원), 이우성 (STEP)
- 일시 2014. 5. 24(토) ■ 장소 고신대학교
- 논문발표신청접수 마감 2014. 4. 25(금) 제출마감일 2014. 5. 7(수)
- 발표분과 경제경영, 교육, 문화예술, 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융합, 기독교세계관 등
- 대학원생은 별도로 오전에 진행됩니다.
- 문의 02-754-8004 (담당: 신효영 간사)

### [해외학자 초청, 오픈강좌] 대학로에 선 기독교 대학생

이번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은 오픈강좌로 동역회 전 회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초청강사 Andrew Basden(Salford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Salford, U.K)
- 일시 2014.5.30(금) 오후 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홈페이지 참고)
- 문의 gihakyun@daum.net / 02-754-8004

## 임원 소식



###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

전성민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4

VIEW 전성민 교수의 책으로 구약 내러티브 본문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구약 윤리는 규범적 진술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세오경의 율법들이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반면 내러티브 본문은 윤리적으로 모호해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행위가 많이 나오며 그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가 드물다. 저자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상황들을 서술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장르적 특징이 오히려 구약 윤리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접촉되어 공명을 일으킬 때, 본문이 독자들의 성품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강조한다.

### [제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학술대회] 기독교사의 세상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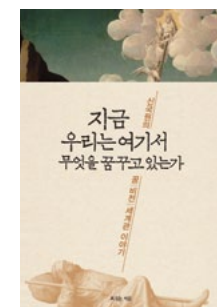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연구 편저한 기독교세계관 연구교재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를 토대로 세계관 통합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2014.5.10.(토) 오전 9시 30분-13시
- 장소 종신대학교 제2종합관 카펠라홀
- 대회 일정 1부 출판기념회 / 2부 학술대회 (홈페이지 참조)
- 등록비 10,000원  
(※선착순 사전등록 50명에 한하여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5권 1세트, 정가 55,000원)를 무료 증정합니다.)
- 예금주와 농협 351-0698-4736-93 (예금주 : 박영주)
- 문의 02-3272-4967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장 박영주(joycepk728@gmail.com)

### [사무국 소식] 주수변경

사무국이 층만 이전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수 및 연락처는 동일합니다.

- 주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5 A동 102호  
(이촌2동, 한강르네상스빌)



###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신국원 | 복있는 사람 | 2014

신국원 교수의 성경 속 비전 이야기.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전을 제시한다. 이 책에는 신학과 철학, 문화이론을 아우르는 저자의 학문적 배경과, 목회현장과 학교에서 설교와 수업을 통해 오랫동안 섬긴 경험이 오롯이 담겨 있다. 참된 비전과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속 신앙의 선조들이 꿈과 환상을 따라 보이지 않는 분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텔링(visiontelling)이 되는지 보여준다. 그들의 발자취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꿈을 꾸며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길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선조들의 발걸음을 추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그들이 보았던 비전으로 열리길 꿈꾸길 소망한다.



## 국수와 국시의 차이

국수와 국시의 차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 밀가루는 봉지에 들어 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 있다.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점방에서 판다.

가게와 점방의 차이: 가게는 아주머니가 지키고, 점방은 아지매가 지킨다.

아주머니와 아지매의 차이: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열라를 업고 있다.

아기와 열라의 차이: 아기는 할아버지가 귀여워하고, 열라는 할배가 귀여워한다.

할아버지와 할배의 차이: 할아버지는 국수를 좋아하고, 할배는 국시를 좋아한다.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풀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OC												

###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생생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http://www.youtube.com/ohauschannel)

f [www.facebook.com/ohauscorp](http://www.facebook.com/ohauscorp)





# 아직도 모바일 월드뷰를 모르세요?

m.worldview.or.kr

지난 호 월드뷰를 보고 싶다면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기

목차를 누르면

문의를 누르면

친구에게 전송하기

선택한 칼럼을 전송

책갈피를 누르면



2014. 5번째

2014년  
동역회 임원 멘토와 함께 하는

## 대학로에 선 기독교 대학원생

2014. 5.30(금) 오후 5시 (매월 넷째주 금요일,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서울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장소를 꼭 확인해주세요!

5월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강좌로 진행합니다!

2014. 5.30(금) 오후 5시

Mentor Andrew Basden(Human Factors and Philosophy of Information Systems)  
(Salford Business School, Univ. of Salford, U.K.)

신청 메일로 신청(소속, 과정명, 이름, 핸드폰, 이메일 기재), gihakyun@daum.net

문의 02-3272-4967, gihakyun@daum.net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